

# 박물관사람들

2017년 여름 · 58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신선무늬 향그릇,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17년 여름 ■ 58호 Contents

기획/금속공예실	金屬列傳 먹고 존재하며 간직하는 향, 장엄 혹은 황홀	4 8 11
문화칼럼	박물관에 숨어 있는 실크로드의 비밀	15
전시실 산책	검은 꽃, 감히 아름다움	19
회원마당	낮으로 나가기 위한 주문	23
학술상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중국문화재 수집	26
박물관회 소식	박물관 특설강좌 40주년 기념행사	31
숨은 전시	그 때 그 시절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17년 6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발행·기획 신병찬 편집위원 강현자·계운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열전屬列傳

“유레카!” 오래전 그리스에서 울려 퍼진 탄성이 떠오른다. 당시 금값이 얼마나 비쌌기에 금세공사는 감히 왕관 제작에 잔피를 부렸을까. ‘황금의 나라’ 신라의 금관과 금제 허리띠는 24K일까? 18K일까?

국립중앙박물관 금속공예실에서 유물에 깃든 역사의 무게를 잠시 잇는다. 진짜? 가짜? 하는 속물적 관심이 미니어처로 만들어 갖고 싶다는 무리한 욕심까지 이른다.

금속공예품은 멀리서부터 고고한 빛으로 시선을 끌어당긴다. 왕실과 사찰 같은 삶의 공간에서 실제 사용되었거나 부장품이었던 금속유물들이 승고한 현대 미술 작품 같다. 최고의 재료와 디테일의 미학을 드러내는 최상의 세공 실력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에 시공을 뛰어넘는 아우라가 느껴진다. 누구라도 눈부신 매력에 속절없이 빠져들 것이다.

최초의 금속공예품인 청동거울은 현대의 것과는 다른 운명을 지녔다. 한 면이 매끄럽지만 얼굴이 또렷하게 비쳐 보일 정도는 아니다. 신과 교감하는 무구로 제사장의 징표

였다. 금속을 다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조직의 구성, 나아가 권력의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동거울뿐만 아니라 청동방울, 동검 같은 초기 금속이 지배층의 전유물로 실용성보다는 정치적,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이유다.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은 구리다. 구리는 다른 금속과 잘 섞여 주석을 섞으면 청동, 아연을 섞으면 황동(놋쇠)이 된다. 합금은 금속의 강도를 높이면서 녹는 온도는 낮추고 산화의 속도를 늦춘다. 자연 상태의 구리보다 더 단단하나 가공은 쉬운 청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민간에서

도 사용한다고 했을 정도로 청동그릇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양증맞은 장신구부터 집채만 한 범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철은 흔한 금속 중 하나이지만 구리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아 다루기가 어렵다. 거푸집에 부어 원하는 모양을 얻는 주조와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단조 기법을 선택하여 가공했다. 탄소와의 합금인 강(강철)은 철보다 더 단단해 삼국시대부터 무기를 만드는데 쓰였다. 무기 외에는 주로 농기구 제작에 쓰인 철이 고려시대에는 대형 철불, 조선 후기에는 사찰의 공양구와 왕실을 넘어 민간의 생활용품에까지 활용되었다.





철제은입사 매화무늬 담배함,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을 다채로운 빛으로 밝히는 금속공예품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별무리 같아 보일 때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가 생각났다. 세상은 거인신이 땅과 하늘을 갈라놓을 때 열렸다. 햇빛 같은 금과 달빛 같은 은, 밤의 어둠을 담아낸 철까지, 금속은 지상을 천상의 데칼코마니로 꾸민다. 지상의 반짝이는 모든 것이 천상과 하나였던 흔적이라고 느껴진다. 까마득히 오래전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금은 태양을 상징했다.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화려한 장식구나 화폐 등으로 쓰였다. 부서지지 않고 얇은 판으로 펴지는 전성과 끊어지지 않고 가는 실처럼 늘어나는 연성이 가장 뛰어난 금은 물과 공기에도 변치 않는다. 주조와 단조기법 위에 정교한 세공이 더해져 변신의 귀재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

금관, 허리띠와 띠드리개, 광배, 사리구, 식리(부장용 신)에는 판금이 쓰였다. 금색 종이를 요리조리 오려 낸 듯 표현이 무궁무진하다. 금판의 무늬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뒷면을 두드리는 타출기법을 썼다. 단조법으로 완성된 금제 완은 두드린 자국의 곁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표면이 미끈하고 모양새도 날렵하다. 우리나라 불상은 정밀한 표현이 가능한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동 주물에 두텁게 도금을 한 금동제가 다수다. 합금도 쉬우며 금박, 금니(금박가루를 아교풀에 갠 것)에도 쓰인다. 현대적 미감을 뽑내는 금 귀걸이에는 누금세공이 적용되었다. 가는 금선이나 미세한 금 알갱이를 금판에 접합하는 기술로 당대 우리의 높은 과학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이자 국제적 문화교류의 증거이다.

금, 은, 동이 귀한 정도를 나타내는 순서라면 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은의 존재량은 금보다 훨씬 적고 다루기도 어렵다고 한다. 얇아지는 전성과 늘어나는 연성의 정도가 금 다음이다. 색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으나 인체에는 독성이 거의 없고 놀랍게도 항균, 방부의 효능을 지닌다. 고대부터 화폐, 식기류와 장식구로 널리 쓰였다.

금속공예기술의 극한은 금속 상감법이다. 금속에 수정, 마노, 터키석 같은 보석을 물려 넣거나, 선과 면을 파낸 후 색이 대비되는 다른 금속을 끼우거나 두드려 넣는 기법이다. 청동에 은과 금을 입사한 향완, 정병 그리고 철에 은과 구리를 입사한 화로, 등잔, 담배함은 가상현실을 연출한다. 금속선이 종이 위의 붓인 양 3차원의 금속면 위에서 자유자재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금속이 생명을 얻은 듯 버들가지 되어 하늘하늘 춤을 추고, 사슴 되어 뛰어논다. 빛으로 그린 산수인물화, 화조영모도의 파노라마만이 아니다. 은은한 흰빛과 중후한 노란빛이 시대를 오가며 다

른 재질의 공예품 문양까지 집대성한다. 청화백자의 안료인 코발트처럼 화창과 연판을 세우고, 나전칠기의 자개처럼 격자문과 당초문을 새긴다. 금속기물에 계절을 잇은 서리꽃과 산수유가 피어난 듯 조화롭고 신비스런 기운이 어린다.

금을 제외한 금속은 물, 공기와 접촉하면 부식물인 녹이 생긴다. 일단 표면에 녹이 슬면 바로 내부로 진행되므로 불순물의 제거는 필수적이다. 금속유물 복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을 전해 듣는다. 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부식의 진행을 막는 녹이 있어 이는 남겨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변에 쇠뭉치 많이 쓰였고 그만큼 녹도 흔했다. 나무 밑동에서 버섯이 자라나듯 검붉은

녹이 번지면 쇠뭉치는 곧 형체를 잃었다. 그렇게 '나쁜 녹'만 기억에 있는데 부식과 방식의 상반된 작용에서 균형점을 찾아간 '좋은 녹'이 있다니 신기하다. 전시실 유리 너머 청록색 이물질로 뒤덮인 금속유물에 들었던 염려를 말끔히 지운다.

되짚어보면 금속의 발견과 활용은 모두 놀라운 일의 연속이다. '광석을 캐내 광물을 얻고 금속을 가공한다.' 말이 쉬워 그렇지만, 모든 단계가 얼마나 지난했는지 가늠조차 힘들다. 지극한 아름다움의 금속공예품 그리고 그 뒤에 그림자처럼 자리한 극한의 노동과 무수한 시행착오, 금속이 써내려간 역사서가 묵직하기만 하다.

문정원 회원



철제은입사 화로, 국립중앙박물관

# 먹고 존재하며 간직하는

집 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평소에는 재료가 귀하거나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가서 잘 안 하던 음식의 냄새입니다. 특별한 날이거나 특별한 사람이 방문 하나 봅니다. 이런 날은 장 안에 고이 모셔왔던 좋은 그릇들과 식기들이 오랜만에 빛을 보는 날입니다. 다 된 음식은 그릇 가장자리에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매일 이런 그릇에 밥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설거지가 끝나면 행여나 깨질세라 예쁜 그릇들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니 똑같은 음식이라도 이왕이면 좋은 그릇에 담아 먹을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3층 금속공예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릇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잔과 완, 병과 주자, 합, 숟가락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 그릇들인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것들이고 재질은 주로 청동 또는 은입니다. 고대에 청동은 귀한 것이라 청동 그릇은 의례용이나 부장용이었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일상용기가 제작되었고 고려시대에 이르면 민가에서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고려의 왕족과 귀족들이 보다 더 귀한 금은 그릇으로 호사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꽃무늬 그릇, 국립중앙박물관



꽃무늬 그릇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복녕궁방고'가 새겨진 접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그릇으로서 선호하는 것을 고르자면 꽃무늬가 있거나 꽃 형태로 된 그릇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동보다는 은 그릇이 좋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열장 끝쪽에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은제 꽃무늬 대접이 있습니다. 대접의 형태는 평범하지만 은 특유의 광택과 음각된 꽃과 나비들이 예뻐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전시실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진을 찍어 확대해보면 꽃의 윤곽뿐만 아니라 꽃잎과 잎사귀 그리고 나비의 날개에도 세세하게 그 결을 새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의 주인은 웬지 가녀리고 고운 중년 귀부인이었을 것 같다고 마음대로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식기들은 주인은 물론이고 출처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발굴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의 혼란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도굴꾼들에 의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진열장에는 다행히도 주인을 알 수 있는 꽃 모양은 접시가 있습니다. 뒷면에 '복녕궁방고'라는 명문이 있어

고려 숙종의 넷째 딸인 복녕공주가 접시의 주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격이 순하여 부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종실 중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천자의 따님이여, 보름달 같으셨네."라는 묘지명까지 남아 있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해맑은 여성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근데 자식 없이 38세에 사망했고 불사佛事에 열심이었던 기록, 그리고 오빠인 예종이 죽은 후 어린 조카인 인종이 즉위하고 이자겸의 난을 겪는 등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정치상황까지 알게되니 이 여인의 삶의 다른 면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복녕공주의 꽃 모양 접시는 테두리에 무늬를 새기고 그 위에 금도금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분해법이 없던 시대의 전통적인 도금법은 수은을 바르고 그 위에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박을 올린 다음 가열하여 금속은 안착시키고 수은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증기를 마시면서 작업했던 장인들의 건강상태는 어땠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이들은 금소金所나 은소銀所에 살던 이들이었을까요? 소所는 일반 군현에 비해 그 거주민들이 지는 역이

# 향, 장엄 혹은 황홀

매우 과증하였다고 하는데, 설사 수은중독의 위험이 없다 치더라도 분명 위험하고 고단했을 그들의 삶을 담보로 이런 아름다운 그릇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숙연한 마음이 들면서 대체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곱씹게 됩니다.

박물관에서 각종 재질의 식기들을 보면서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식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쓰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뭘 먹고 살았길래 저런 것을 만들었을까 매우 궁금해지게 하는 물건이 있으니 바로 숟가락, 특히 고려시대의 것이 그렇습니다. 버드나무 잎사귀 모양 밥술에 자루는 S자로 심하게 휘었고 손잡이 끝부분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1층 고려실에 가면 더 많은 숟가락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요즘 음식을 먹기에는 영 불편해 보입니다.

고려 초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했으며 육식은 보편적이지 않았으나 북방민족들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遼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고려인들의 무덤에 이런 형태의 숟가락이 많이 부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국 문물의 영향을 받아 함께 유행한 부장품일 뿐일까요?

하지만 부장품들 중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숟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숟가락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전 시대에도 금속제 숟가락은 있었으나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를 다시 먹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분명한 것은 밥과 국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문화가 고려 시대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숟가락 형태는 바뀌었을지라도 이러한 부장 풍습이 없어지게 되는 17세기 무렵까지 많은 망자들이 부장용 그릇들과 함께 숟가락을 지니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숟가락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김광균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았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

서유미 회원



향, 국립중앙박물관 금속공예실에는 향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다. 향완, 향로, 향그릇, 향갑 등은 대부분 고려시대 유물로 은입사, 타출 등 기법도 다양하고 청동, 은제금도금 등 재료도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최고의 정성을 들인 물건들이다. 향이 왜 이리 소중한 걸까?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를 영화로 만든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이 떠오른다. 25명의 여성을 살해한 그르누이가 사형 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 사이로 퍼져 나가는 ‘절대향기’. 순간 모든 이들은 그르누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감탄과 갈망에서 시작되어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향기’.

또 하나의 장면은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가에서 매일 밤 열리는 힌두교의 ‘푸자’. 7명 또는 5명의 브라만이 진행하는 이 의식 역시 향로에서 퍼져 나오는 연기 혹은 향기가 지배한다.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한 장면

향은 인도나 이집트처럼 더운 지방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다. 종교의식의 장엄함을 더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별레를 쫓고 악취를 없애는 실용적 쓰임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함께 전래되었는데,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 사문沙門 목호자墨胡子가 고려高麗[고구려]로부터 일선군一善郡에 이르렀다. [그] 군사람인 모례毛禮가 [자기] 집 안에 굴을 파서 [그를] 편히 있게 하였다. 그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전해왔다. 군신君臣은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서 사람을 시켜 향을 싸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묻게 하였다. 목호자가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데, 이를 사르면 향기가 매우 강하여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통하게 하는 데 쓰인다. 신성은 삼보三寶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만약 이것을 사르며 발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불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일반적인 공양물 여섯 가지를 육법공양이라 한다. 등, 향, 차, 꽃, 과일, 쌀이 그것인데 그 가운데 향은 해탈향解脫香이라 하여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계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한다. 불교의 천룡팔부 중 하나인 건달바는 향만 먹고 산다. 향나무, 백단, 침향, 정향처럼 향기로운 나뭇조각을 직접 불에 태우거나 유향, 안식향, 침향 같은 나무의 진을 태워서 향기를 피운다. 불에 태우는 향 이외에 바르는 향과 향수도 있어 불보살이나 수행자의 몸에 바르거나 땅에 뿌려서 더러운 냄새를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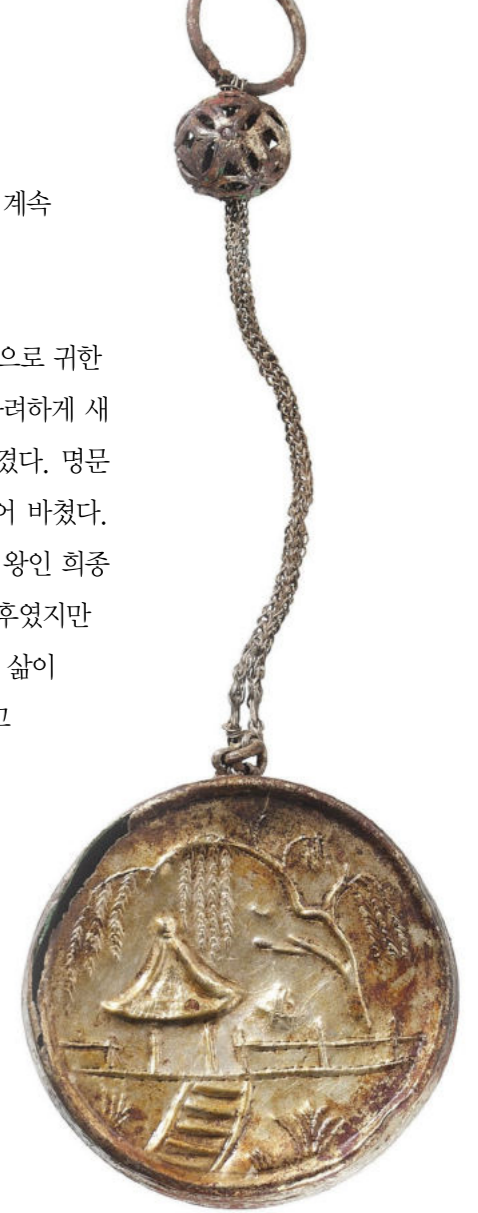
향을 공양하기 위해서는 향로가 필요하다. 향로는 모양에 따라 손잡이가 없는 거향로居香爐, 손잡이가 있는 병향로柄香爐, 매달아 두는 현향로懸香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거향로의 일종인 향완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독창적 형태의 향로이다. 나팔 모양의 받침과 밥그릇 모양의 몸체를

가진 향완은 주로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에도 큰 변형 없이 계속되었다.

〈함평궁주방이 새겨진 청동 은입사 향완〉은 고려의 황후가 발원한 유일한 향완으로 귀한 재료인 은실을 사용하는 은입사 기법으로 연꽃, 포도넝쿨, 구름 같은 무늬를 화려하게 새겼고, ‘옴마니파드메흠’이라는 진언에서 따온 ‘옴마니파’라는 산스크리트어도 새겼다. 명문도 있는데 ‘咸平宮主房以造上華嚴經藏排靑銅香垸壹副道成’ (함평궁주방에서 만들어 바쳤다. 화엄경장 앞에 청동 향완 하나를 두었다.)라는 내용이다. 함평궁주는 고려 21대 왕인 희종熙宗(재위 1204~1211)의 비인 성평왕후로 1211년에 함평궁주로 책봉되었다. 황후였지만 남편인 희종이 최충현을 제거하려다 폐위되고 두 아들도 유배되는 등 파란 많은 삶이었다. 삶의 어느 대목에서 이 향완을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이 화려한 향완과 겹쳐서 떠오른다.

병향로는 긴 손잡이가 달린 향로로 덕이 높은 스님에게 경전 강의나 설법을 청할 때 주로 사용했다. 손잡이 끝의 모습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는데, 연지형 병향로는 받침은 연잎, 몸체는 연꽃, 손잡이는 연꽃가지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요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고려에도 전해졌다. 〈대강삼년〉이 새겨진 연꽃 모양 청동 향로〉는 받침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1077년에 만든 것으로, 손잡이 부분은 대부분 사라졌다. 세 갈래의 연꽃 가지 가운데 가장 위쪽 가지는 연꽃 모양 몸체가 되었고, 아래 가지는 연잎 모양 받침이 되었으며, 중간 가지에는 무언가를 연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려 있다. 날아갈 듯 멋진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에 휩싸인 설법은 참으로 은혜로웠을 것이다.

향은 불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한다. 예수 탄생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 가운데에도 유향이 들어 있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을 건조시켜 만들며 지금도 가톨릭에서 미사 때 사용하는 향이다. 유교 전례인 제사를 시작할 때도 반드시 향을 피운다. 예나 지금이나 심신 수양을 위해 또는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피우며, 아로마세라피 역시 향을 이용한 심신 치료법이다. 고려 시대 사람들 역시 향을 주머니에 넣어 몸에 차고 다녔다. 서공의 『고려도경』에서는 고려의 귀부인을 이렇게 묘사했다.



풍경무늬 향그릇, 국립중앙박물관



‘함평궁주방’이 새겨진 청동 은입사 향완, 국립중앙박물관



‘대강삼년’이 새겨진 연꽃 모양 청동 향로, 국립중앙박물관



신선무늬 향그릇, 국립중앙박물관

모란무늬 향그릇, 국립중앙박물관

분을 바르지만 붉은색은 사용하지 않는데, 버들같이 그린 눈썹이 이마의 절반을 차지한다. …… 푸른색 조이는 두건에 물들인 끈으로 금방울을 매단다. 비단 향주머니를 차는데 향주머니가 많을수록 부귀한 집안 사람이다.

이 말을 증명해 주는 향그릇들이 있다. <풍경무늬 향그릇>은 둥글납작한 모양인데 뚜껑을 여닫을 수 있게 만들었다. 안에 향을 넣고 옷고름 등에 매달 수 있도록 줄을 달았다. 휘늘어진 버드나무 가지 아래에는 멋진 정자가 있는데, 꽤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걸 보니 물가의 언덕인가 보다.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이다.

다른 향그릇을 보자. 이번에는 <신선무늬 향그릇>이다. 은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이것 역시 무늬는 두드러져 새겼는데, 아이 둘이 산과 강, 배가 그려진 그림 죽자를 펼쳐 들고 서 있고 그 앞에 앉은 신선은 손에 부채를 들고 그림을 감상한다. 머리 위의 나무에는 꽃이 가득 피었고, 벌과 나비가 날고 있다. 무르익은 어느 봄날의 풍경이다. <신선무늬 향그릇>이 또 하나 있다. 이번에는 여름날인가 보다. 울창한 나무그늘 아래 비둑판을 놓고 두 신선이 마주 앉았다.

곁에 서 있는 아이의 품에는 묵직한 술병이 들려 있다. 참으로 한가로운 풍경이다. 향그릇에 새겨진 이런 무늬들은 고려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짐작해 본다.

여성들이 찾다는 고려의 비단 향주머니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모란무늬 향그릇>은 여성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향갑 또는 향낭 노리개로 이어졌다. 금, 은, 비취, 산호, 옥, 마노, 밀화 같은 재료에 투조 기법으로 각종 길상무늬를 새겨 갑을 만들었다. 이런 향갑에는 여러 가지 향의 재료를 가루 내 빚어서 넣었는데, 귀중한 약재로 여긴 사향이 들어가기도 했다. 사향뿐 아니라 침향이나 유향도 비상용 약재로 쓰였는데, 평소에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역할을 하다가 비상시에는 응급 의약품으로 쓰기도 했다. 남성들도 부채 손잡이에 매다는 장식품인 선추에 향갑을 매달아 멋도 내고 좋은 냄새도 즐기는 다목적 장식품으로 썼다.

손안에 쏙 들어오는 ‘향그릇’이나 비단 향주머니를 지닌 고려 여인은 스쳐 지나간 다음에야 맡게 되는 은은한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길문숙 회원



샤오허 무덤 전경

## 박물관에 숨어 있는 실크로드의 비밀



### 숨겨진 오타니 컬렉션의 보물

국립중앙박물관 3층 전시실의 화려한 실크로드 유물 사이에 코를 지나치게 길게 표현한 다소 해학적인 목제 가면 사진이 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 유물에는 5천년 실크로드의 역사가 숨어 있다. 박물관에는 이 목제 가면을 비롯해 ‘로프노르 출토’라고만 적혀 있는 유물들이 있다. 이 유물들은 최근에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타클라마칸 사막 로프노르 근처의 샤오허 무덤 출토품인 것이 확인되었다. 박물관의 실크로드 유물은 지난 100여 년간 그 정확한 출처와 시기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이

유물들이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의 탐험대가 수집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서구 열강은 경쟁적으로 실크로드 탐험에 뛰어들었고, 일본도 별다른 준비 없이 그 경쟁에 합류하였다. 오타니 탐험대의 목적은 불교의 동아시아 전래과정 규명이었기 때문에 불교 관련 유물을 주로 수집했지만, 상당수의 수집품은 무작위로 가져온 것이다. 그런 이유로 유물의 분석 및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 면모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목제 가면, 국립중앙박물관

### 타클라마칸 사막의 샤오허 무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중 샤오허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은 초본류 바구니, 펠트제 모자, 긴 코의 목제 인면상, 목제 음양조각상, 가죽 신발 등이다.

샤오허 무덤은 초기 청동기시대(기원전 2000~1500년)에 로프노르 일대에서 최초로 거주한 인도-유럽인 계통 사람들이 남긴 것이다. 타림분지 동쪽 콩추에허 하류의 삼각지 지역에 위치한 샤오허 무덤은 폴크 베르그만이 최초로 조사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 학자들이 재조사하였다. 재조사로 새롭게 발굴된 샤오허 무덤의 자료가 박물관 로프노르 유물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비밀이 풀리게 되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프르제발스키와 경쟁하며 실크로드를 조사했던 스벤 헤딘의 성과가 소개되면서 세계 열강 사이에 본격적인 실크로드 붐이 불었다. 그리고 중국 신장 일대에는 실크로드 유물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유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현지 위구르 주민들이 등장했다. 박물관 로프노르 유물은 오타니 탐험대의 타치바나가 1908~1912년 사이에 2차에 걸쳐서 이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것이다.

샤오허 무덤은 '오르텍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1930년대에 스벤 헤딘과 베르그만의 탐험대에게 이 무덤의 위치를 가르쳐준 현지 위구르인 가이드 Ordek(동투르크어로 '야생오리'라는 뜻)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오타니 탐험대가 샤오허 무덤의 유물을 수집한 1910년대는 현지 주민들이 이 무덤을 본격적으로 도굴할 때였다. 물론 오타니 탐험대를 인솔했던 타치바나는 이 유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 실제 이 유적을 조사한 것은 일본 탐험대가 유물을 수집한 후 20년이 지나서였다. 1930년에 오르텍을 따라 이 무덤을 찾아온 베르그만의 앞에 펼쳐진 샤오허



목제 음양장식, 국립중앙박물관

무덤은 수차에 걸친 도굴로 무덤 곳곳에 유물들이 뒤섞여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베르그만의 조사 이후 샤오허 무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시 사라졌다. 이 유적은 65년이 지난 1999년에 중국의 조사팀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대적인 발굴을 진행하여 그 전모를 밝혀냈고, 현재 종합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일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4천 년 전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들의 모습을 추측하기에는 충분하다.

### 4천 년 전 실크로드의 사람들

샤오허 무덤은 콩추에허의 지류인 샤오허 동쪽 4km 정도에 위치한 타원형의 모래언덕 위에 있다. 높이는 7m, 길이 74m, 넓이 35m로 전체 면적은 2500평방미터에 달한다. 발굴 전에는 무덤 위에 묘비 역할을 하는 100여 개의 호양목 기둥이 박혀 있었다. 모든 무덤은 조각배 모양을 하고 있다. 마치 저승으로 향하는 강을 헤엄치는 듯하다. 사막 속을 헤엄치는 조각배에서는 수많은 미라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인도-유럽인 계통으로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서 목초지를 찾아 이 지역까지 내려온 최초의 실크로드 개척민이었다.



바구니, 국립중앙박물관

당시 타클라마칸 사막은 지금보다 훨씬 강수량이 많은 초원지대였다. 푸른 목초지를 찾아 돌아다니던 인도-유럽인 계통의 주민들은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타림분지를 중심으로 물이 많은 오아시스 일대에 하나둘씩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기 시작했고 후에 누란(크로라이나), 쿠차 같은 도시국가의 기원이 되었다. 20세기 중앙아시아 일대로 진출하려는 서방 각국에게는 자신들과 비슷한 서양인들이 살았다는 것이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실크로드 붐이 불었던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중앙아시아에서 토착화한 '사라진 유럽인'들은 '토하르'인으로 통칭한다. 실크로드가 발견된 19세기 이후 월지, 쿠산, 위구르, 색목인, 소그드 등 중앙아시아 토착 인도-유럽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샤오허 무덤의 발견으로 토하르인들이 실크로드에 최초로 정착한 시기가 사서 기록보다 2천년이나 이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초의 실크로드인이었던 샤오허 주민들의 삶은 그들의 인골 및 다양한 유물에서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무덤에 남겨진 인골의 치아 분석을 통해, 음식은 고단백질과 탄수화물 중심이었으며 식수 상황이 안 좋아 치아 부식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덤에 남겨진 풀바구니 속



바구니, 샤오허 무덤 출토품



펠트제 모자, 국립중앙박물관



펠트제 모자, 샤오허 무덤 출토품

에서는 우유 성분이 발견되었는데, 우유는 유목민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뜻한다. 샤오허 무덤에서는 기관지를 넓히는 역할을 하는 마황이 많이 발견되었다. 초원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근처 사막에서는 모래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댔고, 기나긴 겨울 동안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모닥불의 그을음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천식 등의 풍토병을 마황과 같은 약재로 다스리며 험난한 실크로드의 삶을 이어갔던 샤오허 주민들을 엿볼 수 있다.

### 다시 보는 실크로드

국립중앙박물관의 로프노르 유물은 서구 열강의 문화재 약탈 경쟁이라는 슬픈 역사의 산물이다. 하지만, 실크로드의 기원인 샤오허 무덤 최초 출토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제까지의 실크로드 연구는 한나라에서 당나라에 이르는 시기에만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문명의 교류는 기원전 3천 년경 유라시아 일대에 유목문화가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풀을

먹는 동물들을 키울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초원지대에도 사람이 살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기후는 지금보다 온화했기 때문에 오아시스와 목초지가 발달하면서 실크로드 이곳저곳에 목축민들의 터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원래 실크로드의 시작은 이들이 세운 거점이었다.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원전 3천 년경부터 만들어진 실크로드 위의 기존 거점들이 교역로로 이어진 것이다. 누란(크로라이나), 쿠차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시작은 수천 년 전 사막에 터전을 잡았던 생활력 강한 유목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로프노르 유물은 최초의 유목민이 실크로드 남로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실크로드 문명사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다시 조사된 로프노르 유물은 5월 말부터 박물관 중앙아시아실에 새롭게 전시된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세계 실크로드 연구의 큰 의미를 지니는 샤오허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강인욱 경희대학교 교수

## 검은 꽃, 감히 아름답음

라일락 향이 기분 좋은 계절이다. 터질 것 같은 철쭉 발엔 제비나비가 앉아 있다. 희고 붉은, 노랗고 푸르른 꽃밭에 검은 꽃 대신 제비나비다. 오랜만에 만난 맑은 하늘이 고려청자를 닮았다. '푸른빛은 쪽빛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진하다(靑出於藍).' 고려 비색을 담아낸 청자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오늘은 그 귀족 문화의 정교한 아름다움 못지않게 소탈한 흙의 자유로움을 검은 꽃으로 피워낸 색다른 청자와 만났다. 어떤 화려한 꽃보다 매력적인 고려청자의 미감을 담은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의 철화청자 기획특별전 <철, 검은 꽃으로 피어나다>이다.

철화청자는 유약을 입히기 전 철사 안료를 사용하여 그릇 표면에 붓으로 문양을 그린 후 구워내어 검은색으로 발색시킨 청자를 말한다. 해남 진산리를 비롯해 가마터가 전국에 걸쳐 있다. 강렬한 색상과 붓질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개성을 표현하여 개경의 왕실과 귀족보다는 주로 지방의 서민 계층에서 사용하였다. 12~13세기 고려청자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전체 청자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지 않아 아쉽다. 이번 전시는 철화청자의 모든 기종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애정이 갔다.



청자철화서과문호



청자철채상감운학문매병



청자철화모란문통형병



청자철화모란문병

전시실에서 첫 번째로 기다리던 목이 짧고 어깨 부분이 통통한 <청자철화모란문통형병>은 도드라진 철화 문양을 효과적으로 내세워, 보는 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모란을 몸통 전체에 짝 차게 그려 넣었는데도 표현이 간결해서인지 답답하지 않다. 철사 안료를 문힌 도공의 힘찬 붓질이 리듬을 담아낸다. 제일 먼저 인사하는 통형 병은 수줍게 저만큼 물러나 검푸른 자태로 귀한 존재감을 알린다. 앞의 통형 병 모란문이 추상적이었다면 <청자철화모란문병>은 절지형태의 모란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잎맥은 섬세하게 음각해 철화기법의 거친 표면에 장식 효과를 준다. 청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장식기법의 호환성을 볼 수 있는

사례로 융통성이 돋보인다. 손맛이 좋을 것 같다는 지인의 말처럼 가느다란 목선을 잡고 싶어진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참 특별한 공 모양 항아리가 놓여 있다. 무심한 듯 구불거리는 철화 줄무늬가 이색적이다. 정선된 태토와 말끔한 성형으로 표면도 매끄럽다. 수박 모양의 친근한 형상이 관람객의 발길을 오래 잡아둔다. <청자철화서과문호>이다. 팔도 토산물과 별미음식을 소개한 허균의 『도문대작』에 따르면 1279년 원나라의 홍다구가 동정우군 부원수로 일본 정벌 길에 수박씨를 가져와 개경에 처음 심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항아리의 제작 연대는 12세기이다. 수박과 만나기도 전에 수박이 연상되는

재미난 형태를 만들어낸 도공의 상상력, 그 끝은 어디일까? 전시품 가운데 가장 많은 기종은 술과 액체를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매병이다. 청자 매병은 12~14세기 300년에 걸쳐 제작되었지만, 150년이 채 안 되는 철화 청자 매병은 형태 변화가 크지 않다.

파노라마식 전시 공간에는 위아래 보조 문양을 장식하고 전체를 국·당초로 빼곡히 장식하거나 보조 문양 없이 전체를 회화식으로 장식한 매병이 즐비하다. 문양이 섬세하거나 성글거나 나름의 자연스러운 맛과 멋을 표현하는 데는 거침이 없다. 13세기로 갈수록 여백이 있는 간결한 문양 장식과 허리 부분이 있는 매병이 제작된다.

<청자철화국당초문매병>의 철화 문양에는 작은 균열이 보인다. 가마에서 꺼낸 도자가 식을 때, 유약과 태토의 수축률에 차이가 생겨 유약이 깨지면서 문양의 겉면에도 작은 금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빙렬효과라고 한다. 분명 결함일 텐데, 그 흠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인다. 철화 문양의 밀도는 떨어지지만 독창적 장식을 낳은 활달한 그 에너지가 좋다.

철화 문양의 한 종류인 철채는 청자 태토 위에 철사 안료로 그릇 전체를 칠하고 청자 유약을 시유하여 마치 흑유를 씌운 것처럼 검게 발색시킨다. 푸른색은 보이지 않지만 청자 태토에 청유를 입히고, 철사 안료로 칠했기 때문에 철채청자라고 부른다.

‘수줍은 듯 작은 입매, 터질 듯 풍만한 어깨, 끊어질 듯 잘록한 허리’ 아름다운 여인을 닮은 듯한 <청자철채상감운학문매병>은 기품이 있다.

검은빛 철채 매병의 몸통에 학과 구름을 백토로 상감하여 흑·백 대비가 감각적인 효과를 준다. 검게 빛나는 하늘에 거칠 것 없는 날갯짓은 익살스러우면서 자유롭다. 꽃처럼 피어오르는 구름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매병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싶다. 은은한 광택이 단아한 형태와 어우러져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다.

다른 철채 상감 매병을 보자. 모란인 듯 연꽃을 닮은 상상속 보상화와 당초문을 빼곡하게 그리고 바탕을 백토로 상감한 <청자철채상감보상당초문매병>은 청자 유약을 입히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어깨에 여의두문과 굽 위쪽에 국판문菊瓣文까지 빈틈없이 과감한 붓질이 무광택의 질감으로 극대화된다. 철채 상감은 양질의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인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에서 13세기 후반 경에 새롭게 시도한 장식 기법이라 한다.

철백화는 철사 안료와 백토를 혼용하여 문양을 그린 것을 말하는데, 붓으로 그린다는 점에서는 철화와 같고 문양의 소재와 구성 면에서는 상감과 비슷하다. 참외 모양을 본떠 만든 <청자철백화연화문과형주자>는 볼록한 면에 절지형 연꽃을 철백화 기법으로 꾸몄는데 기본 패턴은 상감기법과 거의 일치한다.



청자철채상감보상당초문매병



청자철백화연당초문주자

〈청자철백화연당초문주자〉는 몇 년 전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으로 국내에 전시된 〈은제금도금주자〉와 똑 닮았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어깨가 금속기의 영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 작품으로 증명된 사례인 것 같다. 백화와 음각 기법으로 연당초문을 꾸미고 주구와 손잡이는 대나무 마디로 표현하여 입체적이다.

고려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청자는 건물을 장식하는 용도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아름다운 모란과 당초무늬를 세련되게 형상화한 〈청자양각모란당초문기와〉는 고려 건축문화의 화려함을 대변한다. 『고려사』에는 의종이 1157년 궁궐 동쪽에 양이정을 세우고 정자의 지붕을 청자 기와로 덮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시실에는 원통의 기둥 형태로 양쪽에 같은 크기 구멍이 뚫려 있는 청자가 있다. 건축 부재로 보이는 〈청자철화모란당초문난주〉이다. 청자 난주는 알려진 예가 없어 더욱 주목하게 된다. 청자 기와와 더불어 정자를 장식하거나 궁궐 내의 경계를 짓기 위한 난간기둥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난주 표면을 가득 채운 모란당초문 꽃과 잎의 음각 선은 생동감이 넘치는데, 요역에 징발되어 고픈 배를 움켜쥐고 일했던 당시 백성들의 한숨이 이 부재에도 서린 건 아닌지 안타깝다.

검은 꽃으로 피어난 철화청자의 솔직담백함은 활달한 변용을 통해 독특한 현대적 미감을 노래한다. 회화성 짙은 도공의 표현력에서 분청사기의 추상적인 무늬와 호방한 미의식이 겹쳐지는 건 나 혼자만의 느낌이려나?

정은정 회원



청자철화모란당초문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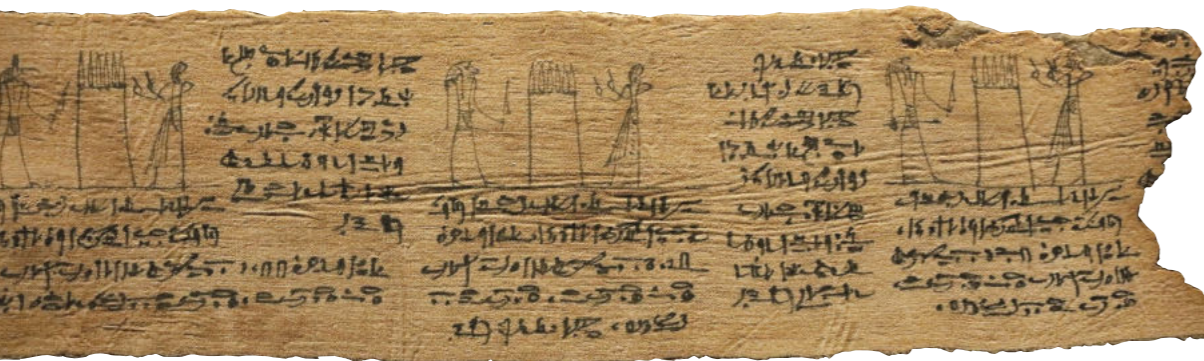


오시리스의 심판

## 낮으로 나가기 위한 주문

언제였든가. '사자의 서'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막연히 신비로웠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사자의 서'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은 문힐 듯 문혀지지 않았다. 선뜻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불가사의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을까. 상형문자처럼 이집트라는 나라가 내게는 웬지 낯설고 아득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가사의처럼 막연했던 '사자의 서'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신화' 강의와, 그와 연계된 '이집트 보물전'을 관람하면서였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아스라한 이집트의 신화가 영험하고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가득 품고서 나를 고대 문명의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신비로움을 품은 채 기원전 삼천 년 이집트 신화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들은 사람에게에는 영과 혼이 있다고 믿었다. 영은 '바Ba', 혼은 '카Ka'라고 불렀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카'와 '바'가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죽은 자의 육체를 떠난 '바'는 낮과 밤으로 죽은 자의 몸을 들락거린다고 믿었으며, '카'는 죽은 자의 몸을 떠났다가 부활할 때 육체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사자의 서' 부분

그들은 영혼이 육체를 쉽게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미라를 만들어 간직했으며, 관 뚜껑에 죽은 자의 얼굴을 새겨 놓기도 하고, 죽은 자의 얼굴을 본뜬 마스크를 씌워 놓기도 하였다. 그들은 '카'와 '바'가 제대로 돌아와 무사히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주문을 무덤이나 관 속에 넣어 매장을 했는데, 그 주문이 바로 '사자의 서'다. 고대 이집트 장례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인 '사자의 서'는 원래 '낮으로 나가기 위한 주문'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사자의 서'에는 백여 개의 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주문들은 피라미드 벽과 무덤의 안쪽 면에 상형문자 형태로 기록되었고, 다른 장례문서와는 달리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초서체 히에로글리프와 다양한 삽화를 그려 관 속에 별도로 넣어두기도 하였다.

이토록 영생을 꿈꾸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영생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강의 때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둠의 세계로 떨어졌던 태양이 가장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도달했을 때 지하세계 영생의 신 오시리스와 결합하여 생명력을 얻고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다.'

태양의 일주운동을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처럼 아침에 떠올랐다가 저녁에 지는 태양의 존재를 기이하게 여겼으며, 밤으로 저버린 태양이 어둠의 지하세계에 있는 신과 결합한다고 믿었기에 태양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후세계를 확신했기에 그들이 믿는 태양 신이 그러하듯 인간의 삶이 영원히 거듭된다고 믿었다.

'사자의 서'가 나를 삽화 '오시리스의 심판' 앞으로 이끌었을 때, 나는 이미 경이로움을 넘어서고 있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를 떠나간 '카'가 다시 육체로 돌아오기 위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다.



여성의 미라 덮개



'바'가 그려진 관의 일부

죽은 자의 '카'가 지하세계에 가서 오시리스가 판결하는 최후의 심판대까지 가려면 42명의 신들이 담당하는 주문을 통과해야 한다. 주문의 핵심은 죽은 자가 생전에 42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것이 진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시리스의 심판'대에 있는 정의의 저울에 죽은 자의 심장의 무게를 재어야 한다.

이집트인들은 감정과 사고를 다스리는 것은 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내장은 꺼내어 따로 보관하고 심장만 육체에 남겨 두었는데 이 심장을 내세에 들어갈 자격을 심사하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정의의 잣대로 썼다.

오시리스의 심판 삽화에는, 저승사자 아누비스가 흰옷 입은 죽은 자의 손을 잡고 들어간다. 그 앞에 저울이 있고, 저울 밑에는 명계의 괴수 암무트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심장을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저울의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얹고, 다른 한쪽에는 정의, 진리의 여신 마아트트의 타조깃털을 올려놓고 둘의 무게를 잰다. 심장과 깃털의 무게가 같으면 죽은 자는 부활의 신 오시리스로부터 영생을 보장받는 생명의 열쇠 앙크를 받게 된다. 죄가 많아서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워 심장의 저울이 기울면 그 밑에서 굶주리고 있던 암무트가 심장을 먹어 버린다. 심장을 잃어버린 죽은 자의 영혼은 소멸해버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아 다시는 영생할 수 없게 된다.

신비로운 '사자의 서'를 알고 나니, '사자의 서'에 들어 있는 오시리스의 심판이 더 신비롭고, 그들의 미라가 그 주문과 함께 무덤 속에 수천 년 동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더 신비로울 따름이다.

전시장에서 이집트 미라들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보았다. '낮으로 나가기 위한 주문'을 무덤 속에 지닌 채 이집트 미라들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밤 속에 있을까. 낮으로 나갔을까. 아직 주문을 풀고 있는 중일까.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이토록 잘 보존되어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지금 이 미라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꿈꾸는 죽음의 집은 영원할 것이므로.

강현자 회원

#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중국문화재 수집

## — 關野 貞의 수집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5년 개관하여 1945년 문을 닫기까지 총 14,879건의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총독부박물관 소장품 대부분은 이른바 '조선 문화의 변천을 밝혀주는 역사적 자료'였지만, 그 가운데는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외 지역에서 제작된 문화재도 포함되었다. 본고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수한 조선총독부박물관 수집품 가운데 1918년 구입한 중국문화재에 주목하였다. 총 136건 263점에 달하는 중국문화재는 등록번호 본관6567부터 본관6702까지에 해당하며 대장 및 카드에는 에토 나미오(江藤道熊) 등 2명이 매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공개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살펴보면 이 문화재는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 1868~1935)[도판01]가 중국에서 직접 수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중국문화재 수집 계획은 1918년 세키노가 총독부 관료들과 만난 이후에 결정되었다. 세키노는 당시 문부성(文部省) 자금을 받아 중국, 인도, 유럽으로 유학 중이었다. 그는 조사지인 중국으로 가기 전 조선총독부를 방문하여 중국문화재 구입을 건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그에게 “해외에서 고적조사, 보존, 박물관 조직, 진열방법 등의 조사”, “중국에서 조선 및 일본(內地) 유물과 관계 있는 물품의 수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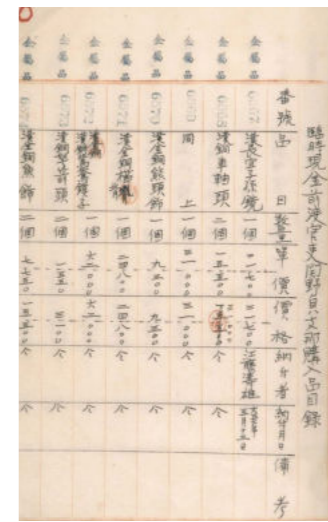
의뢰하고 수당 및 조사비용 1,000원과 문화재 구입비 3,000원을 지급하였다. 세키노는 중국의 동북 지역을 경유하여 베이징으로 들어갔다. 그는 진열품의 대부분을 베이징의 유리창(琉璃廠) 및 치엔먼(前門) 일대의 골동품상에서 구매했다. 그 가운데는 대길상(大吉祥), 달고재(達古齋), 연고재(延古齋), 식고재(式古齋)와 같이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는 골동상을 편력할 때 항상 현지의 일본인을 동행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이로 에토(江藤)를 들 수 있다. 세키노의 일기에서 에토는 4월 4일 처음 등장한다. 에토는 세키노가 베이징에 도착한 지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세키노의 안내를 담당했지만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자주 골동품점 방문에 동행했으며,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로 이동할 때도 텐진(天津)까지 송영하였다. 세키노는 일기에서 자신과 함께 골동품점을 방문했던 이들의 이름 앞에 ‘氏(씨)’ 또는 ‘君(군)’ 등을 붙였으나



[도판01]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 1868~1935)

에토는 그냥 ‘에토’라는 성씨만 호명하였는데, 이는 에토가 통역 등의 업무로 고용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에토는 세키노 다다시 구입품의 1·2차 납부자인 에토 나미오(江藤道雄)임이 분명하다. 세키노는 에토에게 매입금액을 위탁하여 정산의 편의를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키노 다다시는 베이징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들과 수시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와 같은 연락을 통해 세키노는 진열품 구입 진행 과정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세키노가 중국 체재 중에 문화재 구입비용을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증액하는데, 이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로 생각된다.

세키노 다다시는 베이징을 출발하여 텐진에 도착한 후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등을 거쳐 8월 16일 상하이에 도착했다. 세키노 다다시는 화북 조사시 베이징을 거점으로 했던 것처럼 상하이를 거점으로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전장(鎮江), 항저우(杭州), 샤오싱(紹興), 타이저우(台州), 닝보(寧波) 등 화남지역을 조사했다. 세키노 다다시는 화북에서와 달리, 화남에서는 유적 조사에 주력하였다. 개인수집품이나 골동품점을 돌아보았지만, 베이징의 경우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 상하이 체재 중에는 현지 거주 일본인과 교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하이총영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 明, 1876~1937), 육군대좌 마쓰이 이와네(松井石, 1878~1948) 등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특히 마쓰이는 그에게 통역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가 바로 3차



[도판02] 임시현금전도관리관야정지나구입품목록 臨時現金前渡官吏關野貞支那購入品目錄 『陳列物品請求書(大正8~10)』 가운데 0005-008-002-005

납부자인 위샤오신(俞少欽)이다. 위샤오신이 납부한 수집품은 양적인 면이나 구입액 면에서 베이징 수집품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으로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면 모두 탁본이다. 棲霞寺舍利塔碑銘, 唐明徵君碑, 始興忠武王碑, 蕭侍中神道碑로 세키노가 이때 조사했던 비석과 일치한다. 그는 조사 시 탁본을 하는 사람을 동행했다. 이로 볼 때, 위샤오신이 납입한 탁본은 1·2차 납입품과 달리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사 수행 시 실물로부터 탁본을 하여 얻은 결과물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그는 총독부의 진열품 구입비를

자신의 조사비용으로 활용했다. ‘임시현금전도관리관야정지나구입품목록臨時現金前渡官吏關野貞支那購入品目錄’[도판02]에 따르면 세키노 다다시는 총 136건 268점의 문화재를 구입하고 3616,302원을 지출하였다. 총독부의 다른 구입품과 달리 錢 단위 이하까지 계상된 것은 아마도 중국의 화폐로 구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질에 따라 나누어보면 금속품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도토자기와 옥석제품이 각각 25건으로 그 다음이다. 세키노 다다시가 조사 도중에 골동품을 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오래된 물건을 구입하거나 탁본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학교에 기증하였지만, 일부는 수집가로서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그는 1902년 첫 조선여행에서도 古鏡, 佛像, 고려청자 화병과 玉 등을 구입한 바 있으며, 1910년 중국여행 시에도 유리창에 자주 출입하며 古錢, 尺度 등을 구입했다. 그런 점



[도판03] 무평석문武平石門  
北齊 말기~隋 | 돌 | 높이 239.5cm  
傳 허베이(河北) 츠저우(磁州) 출토  
국립중앙박물관(본관6636)



[도판04] 한장의자손경漢長宜子孫鏡  
漢 | 청동 | 지름 20.8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6567)



[도판05] 한동거축두漢銅車軸頭  
戰國~漢 | 청동 | 길이 7.7/6.3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6568)

에서 본 구입에도 세키노의 취향이나 관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武平石門(본관6636)[도판03]을 들 수 있다. 1918년 3월 22일 류리창 延古齋에서 구입한 것으로 상인방, 2개의 기둥, 문지방, 1쌍의 사자로 구성된 구조물이다. 상인방 전면에는 寶珠를 맞잡은 靑龍과 白虎를 선각하고 기둥 전면에는 풀꽃 무늬[唐草文]를 새겼다. 사자는 발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태다. 누예묘 婁叡墓(570), 서현수묘 徐顯秀墓(571), 곡률철묘 斛律徹墓(595) 등 북조 말기부터 수대 사이에 조성된 무덤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세키노는 구입 시 판매자로부터 츠저우(磁州)의 북제 北齊 무평연간 武平年間(570~576)에 조성된 무덤에서 갖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세키노는 무평 석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키노는 구입 후 자신의 일기에서 ‘웅장하고 강건한 풍모를 느낄 수 있는 逸品’이라고 상찬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저서 『支那の建築と藝術』(1938)에서도 거듭 언급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키노 다다시 구입목록에서 볼 수 있

는 가장 큰 특징은 전국시대 戰國時代(기원전475~기원전221)부터 진한대 秦漢代(기원전221~220)에 제작된 것이 다수를 점한다는 것이다. 한장의자손경 漢長宜子孫鏡(본관6567)[도판04], 한동거축두 漢銅車軸頭(본관6568)[도판05], 한동대대구 漢銅大帶具(본관6576)[도판06] 등과 같이 명칭 앞에 한漢을 기록한 것이 84건 154점이며 이 밖에도 녹유도배 綠釉陶杯, 고동령구 古銅壺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90건을 상회한다.

이로 볼 때 세키노 다다시는 한대 고분 출토품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당시 중국 골동품 시장의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가 있다. “미국인은 청동기와 鈞窯자기를, 프랑스인은 법랑, 칠기, 징타이란(景泰藍)을, 일본인은 옥기와 龍泉자기를, 영국인과 독일인은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물건을 즐겨 사들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집 경향 역시 컬렉터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키노가 베이징 체재 시 야마나카 상회(山中商會)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골동품 상점에 방문하고도 그곳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그가 희



[도판06] 한동대대구漢銅大帶鈎  
漢 | 청동에 금은입사 | 길이 20.0cm | 국립중앙박물관(본관6576)



[도판07] 석암리 9호 무덤 유물 배치도  
『古蹟調査特別報告(第1冊)』(京城:朝鮮總督府, 1919), p.30.

망한 물건과 그들의 주력 상품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가 한대 문화재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키노 다다시는 스스로를 낙랑문화의 발견자로 자임하였다. 일본인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1909년 대동강 좌안에서 무덤을 발굴했고 이듬해인 1910년 두 기의 무덤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그는 이 무덤을 고구려의 유적으로 판단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대 고분을 발굴했던 경험을 갖고 있

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는 세키노가 발굴한 무덤은 고구려의 유적이 아니라 낙랑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는 이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자신이 발견한 무덤이 낙랑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1912년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가 이 무덤을 낙랑의 무덤이라고 비정한 이후의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주도했던 이 조사로 ‘낙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세키노는 낙랑 유적의 조사 및 출판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거기에는 도쿄제국대학 출신이었다는 점과 1909년 조사 이래 쌓은 재조선 일본인 관료들과의 친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세키노는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 古蹟調査委員會 설립 이후 첫 사업으로 진행된 대규모 낙랑 유적 조사도 주관하였다. 그는 정백리, 석암리 일대에서 10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으로 석암리 9호 무덤이 있다. 석암리 9호 무덤은 고분의 구조로나 부장품의 종류와 양 면에서도 향후 낙랑 발굴의 전기가 되었다[도판07]. 낙랑무덤 출토품은 앞서 소개했던 세키노 구입품과 종류 및 형태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16년의 낙랑고분 발굴은 세키노의 1918년 중국문화재 구입에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키노 다다시의 중국문화재 수집은 조선 내 발굴 조사에 더하여 식민지 기구를 활용한 개인 연구의 확장이기도 했다.

세키노 다다시는 낙랑을 한반도 문화의 출발점으로 생각했다. 1910년 『조선예술지연구朝鮮藝術之研究』에서는 조선의 문화를 삼국시대부터 기술하였지만 1914년 이후에는 낙랑·대방을 첫머리에 기술했다. 아울러 프랑스 학사원으로부터 스타니스라스 줄리앙 상(Prix Stanislas Julien)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도판08] 조선총독부박물관 제4전시실(낙랑대방실)  
연도 · 촬영자 미상 | 간판 인화 | 간판29521

첫 권 또한 낙랑에서 시작했다. 이른바 ‘조선사 타올성론’의 첫대목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관점은 동시기 조선 학자들인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등에게서도 확인된다.

세키노 다다시는 총독부박물관이 낙랑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중국문화재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1918년 총독부 진열품 구입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한대 문화재, 그 가운데서도 고분 출토품

에 주목했다. 이는 총독부박물관의 중국문화재는 그 수집 단계부터 고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낙랑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은 수집 과정에서 뿐 아니라 전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총독부박물관은 제4전시실 낙랑·대방 전시실[도판08] 8개의 진열장 가운데 1개를 할애하여 중국 문화재를 전시했다. 그 의도는 당연히 중국 문화의 정수를 한반도에 이입시켰다는 낙랑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 1918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중국문화재 구입건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권력기구인 총독부의 식민지 관료와 제국대학 출신의 학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일례이자 아울러 동시기 박물관의 전시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지향점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태희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심사평\_김재홍(용인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세키노 다다시의 수집 활동을 통해 총독부박물관의 중국문화재 수집과 전시를 해명한 것이다. 특별전 <동양을 수집하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초를 얻 박물관 업무와 연구를 결합한 논문이다. 그동안 한국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했던 일제시기 박물관 관련 연구의 범위를 중국 한 대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는 총독부박물관 공문서에서 세키노가 구입한 중국 유물의 구입경로를 일일이 분석하여 문서의 작성과정을 해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유물의 구입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일반적인 구입유물이 가진 불확실한 근거를 상당 부분 불식하였다. 더불어 구입품 목록을 통하여 유물을 분석하고 전시와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키노가 구입, 전시 등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의지를 잘 해명하였다.

**심사평\_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총독부박물관 공문서를 통해 박물관 소장 중국문화재의 입수 경위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동경제대 건축학과 세키노 다다시 교수의 역할을 규명한 논문이다. 정합적인 논리 구성과 치밀한 실증 작업이 돋보인다.

박물관 소장 중국문화재(본관6562~6702번) 총 136건 263점의 입수 경위를 면밀하게 추적하여 1918년 세키노 다다시가 중국에서 직접 진열품을 구입하였음을 밝혔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품 형성 과정에 개입한 동경제대 세키노 다다시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총독부박물관과 제국대학 교수 출신 관학자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 박물관 특설강좌 40주년 기념행사

우리회는 지난 3월 20일에 박물관 특설강좌 개설 40주년을 기념하여 박물관 소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박물관 특설강좌는 197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및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설하였고, 2016년 40기까지 14,819명이 수료하였다.

특설강좌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작년부터 여러 차례 관련 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0주년 기념행사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2016년 40기 특설강좌 수료식에서는 30년 이상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40주년 기념행사에는 박물관 및 박물관회 관계자, 강사진, 수강생,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설강좌 운영에 큰 기여를 하신 강사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기념영상 상영, 박물관회 기증유물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정영호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한상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병모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안휘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총 다섯분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수상 소감으로 “우선 최순우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순우 선생이 관장이 되시고 나서 실질적인 내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물관회, 박물관 특설강좌입니다.”라며 “당시 명강사들이 박물관에서 부탁하면 한 분도 거절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왜 나는 안 부르냐며 섭섭해할 정도였습니다. 훌륭한 강사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셔서 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정영호, 한상복, 김병모, 안휘준 교수님이 그런 분들입니다.”라고 강사진과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기념 자료집 제작, 기념 전시, 혜곡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묘소 참배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기념 자료집은 40년간 진행된 박물관회 교육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특설강좌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특설강좌·

연구강좌 강의일정, 고적답사 일정, 특설강좌 수료생 명단, 보도자료, 자원봉사자 명단, 관련 문서·사진자료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특별히 정영호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지건길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유상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고부자 전 단국대학교 교수의 회고담이 실려 있다.

기념행사와 같이 진행된 기념 전시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박물관 교육관 로비에서 열렸으며, 박물관 특설강좌 관련 사진자료, 문서자료, 교육자료 등이 전시되었다. 또한 혜곡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묘소 참배는 특설강좌라는 교육을 처음으로 기획한 최순우 전 관장님을 기리는 행사로, 4월 7일에 진행되었다. 정양모, 지건길, 이건무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유상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을 비롯하여 박물관 및 박물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십이지신상-호랑이,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실

## 그 때 그 시절

호랑이가 제일 힘이 셨던 시절이 있었더라.

어른들은 힘센 호랑이에게

무서운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 달라며

무덤까지 같이 갔다더라.

호랑이도 담배를 먹던 그 때 그 시절에는.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信韓 金英那 南秀淨 朴殷寬 禹燦奎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鄭溶鎮  
           許榕秀 洪政旭 李榮勳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b>주작회원</b> 尹光子	회원	金承謙 金信韓 南秀淨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俞相玉 尹在倫 李圭植 李明姬 李垞炘 鄭明勳 鄭在鳳 趙顯相 趙顯相 許允秀 洪政旭	서릉지주 <sup>(주)</sup> 대표이사 의장 대성 사장 <sup>(주)</sup> 썬앳푸드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팬택&큐리텔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경신금속 <sup>(주)</sup>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MashupAngels 대표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sup>(주)</sup> 한섬 효성 산업자재 PG장&전략본부 부사장 <sup>(주)</sup> ALTO · <sup>(주)</sup> ALTEK 부사장 <sup>(주)</sup> 헤럴드 회장
<b>현무회원</b>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b>천마회원</b> 朴殷寬 孫昌根 申聖秀 申憲澈 尹碩敏 尹章燮 鄭溶鎮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sup>(주)</sup> 시몬느 회장 소장가 고려산업 <sup>(주)</sup> 회장 SK에너지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신세계그룹 부회장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GS EPS 대표이사 <sup>(주)</sup> BGF리테일 회장		
<b>금관회원</b> 姜德壽 庚 園 權俊一, 具在善 曉 暲	<sup>(주)</sup> STX 광제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회원	<b>은관회원</b> 姜院基 金教台 金南延 金錫洙 金寧明	오리온 대표 삼정회계법인 대표 <sup>(주)</sup> 동훈 대표이사 동서식품 <sup>(주)</sup> 회장 <sup>(주)</sup> 예을 이사장

金英姬 金鍾漢 金芝延 柳芳熙 朴英柱 朴知原 朴禎原 裴東眩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 哲 梁洪碩 禹燦奎 柳昌宗 李教祥 全裁範 崔杜準 崔正勳 최철원 韓惠舟 許允烘	회원 <sup>(주)</sup> 종합전기 대표 <sup>(주)</sup> 건설 대표 <sup>(주)</sup> 풍산주택 회장 <sup>(주)</sup> 다이소아성산업 부사장 두산중공업 <sup>(주)</sup> 대표이사 부회장 두산 네오플렉스 부회장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sup>(주)</sup>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 <sup>(주)</sup>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대신증권 <sup>(주)</sup> 사장 학교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금강공업 <sup>(주)</sup> 사장 <sup>(주)</sup> 동남유화 부회장 대보건설 <sup>(주)</sup> 부사장 M&M <sup>(주)</sup> 사장 하피스트 GS건설 전무
--	--

### 청자회원

姜承模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赫 金建昊 金京姬 金寧慈 金大煥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珉 金榮秀 金英惠 金裕錫 金侖壽 金侖壽 金恩惠 金益煥 金仁順 金載烈 金載勳 金正宙 金宗學 金兌炫 金澤辰 金賢銓 南兌勳 柳重熙 柳智勳 朴環鎮 朴仙卿 朴善正 朴宣注 朴世昌 朴載相 朴載蓮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KP그룹 부회장 <sup>(주)</sup> 금비 부회장 <sup>(주)</sup> LS 이사 LS-Nikko동제련 <sup>(주)</sup> 부장 LIG넥스원 <sup>(주)</sup> 부회장 LS-Nikko동제련 <sup>(주)</sup> 전무 삼양사 팀장 <sup>(주)</sup> 피어나조경 대표이사 <sup>(주)</sup> 예을 명예이사장 <sup>(주)</sup> 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 <sup>(주)</sup> 사장 한화 큐셀 전무 다우데이터 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 <sup>(주)</sup>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제일화재 이사장 <sup>(주)</sup> 해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서울도시가스 이사 한세실업 <sup>(주)</sup> 상무 한국고미술자기 연구소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영풍제약 부사장 <sup>(주)</sup> 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성신양회 <sup>(주)</sup> 사장 <sup>(주)</sup> 엔씨소프트 대표 히든베이호텔 사장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sup>(주)</sup> 퓨처플레이 대표이사 <sup>(주)</sup> 한탑 사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용인대학교 부총장 대선제분 <sup>(주)</sup> 전무 영은미술관 관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성곡미술관 이사 <sup>(주)</sup> 신원 부회장 재미교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方正梧 裴允植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宋秉峻 辛炳讚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吳勝敏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尹賢慶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常宰 李善眞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玉卿 李容濬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廷龍 李周成 李柱翰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TV조선 상무 <sup>(주)</sup> 한국제인모터 대표이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sup>(주)</sup> 경동홀딩스 상무 <sup>(주)</sup> 게임빌 · <sup>(주)</sup> 컴투스 대표이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기구박물관 부관장 <sup>(주)</sup> 진로 대표이사 사장 <sup>(주)</sup> 비상교육 대표이사 동일산업 <sup>(주)</sup>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 <sup>(주)</sup>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 <sup>(주)</sup> 전무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sup>(주)</sup> 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동화약품 상무 삼일회계법인 전무 코오롱 인터스트리 상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sup>(주)</sup> 삼화택시 대표이사 목금토갤러리 관장 <sup>(주)</sup> 에이티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서울옥션 대표 <sup>(주)</sup> 경농 부사장 <sup>(주)</sup> 이테크건설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세아제강 전무이사 <sup>(주)</sup> 삼익유니버스 이사 흥아해운 전무 창원지방법원전주지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	--

李學俊 李海珍 林鍾勳 張善霞 張升準 張仁宇 洋賢財團 田永采 田潤洙 丁恩美 鄭義宜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榮峻 曹在顯 趙希卿 陣在旭 千碩圭 崔世勳 崔雄善 崔仁善 崔再源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榮宰 咸泳俊 許正錫 許辰秀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 金根鎬 洪正國 洪正道 洪進基 洪振碩 黃仁奎 Joseph Bae Mark Tetto	서울옥션 고문 NAVER 이사회 의장 한미IT <sup>(주)</sup> 대표이사 <sup>(주)</sup> 교원 부문장/부장 매일경제 사장 선인자동차 · 고진모터스 대표이사  <sup>(주)</sup> 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블룸앤코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 <sup>(주)</sup> 대표이사 현대유엔아이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 <sup>(주)</sup> 대표이사  <sup>(주)</sup> 가온소사이터 대표 하나유비에스 대표 천일식품 <sup>(주)</sup> 대표 <sup>(주)</sup> 카카오 CFO <sup>(주)</sup> 인팩 대표이사 회원 SK <sup>(주)</sup> 부회장 회원 · 자원봉사  노루홀딩스 회장 <sup>(주)</sup> 오투기 회장 일진홀딩스 <sup>(주)</sup> 대표이사 SPC <sup>(주)</sup> 부사장  <sup>(주)</sup> 화승R&A 부회장 호성호업 회장 <sup>(주)</sup> 더벤처스 대표이사 남양유업 <sup>(주)</sup> 부장 고려제강 상무 고려상사 <sup>(주)</sup> 부회장 회원 <sup>(주)</sup> BGF리테일 전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아울렛 이사 남양유업 <sup>(주)</sup> 상무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KKR Asia Limited 대표 TCK Investments 상무
--	--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